



작은 사업장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개악 반드시 저지하자!

우리 사업장은 충북 청주 산단에 있는 전체 직원의 수가 40여명 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치약 원료, 경유자동차 매연감소 원료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그래도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실했던 기업은 차입경영의 심화로 부채가 많아지면서 경영부실을 낳았습니다. 경영부실은 그대로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졌고 사측은 자신들의 경영부실로 인한 고통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고통 강요와 권고사직, 지속되는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우리는 2015년 23명의 현장 노동자 중심으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축매지회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는 끝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거부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사측은 근본적인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채 제대로 된 대책을 내 놓지 않았고 조합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한편 회유하려고만 했습니다. 권고사직과 회유가 뜻대로 안 되자 대표이사를 교체했지만 회사의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2017년 임금체불과 더불어 구조조정까지 시작했습니다.

단결과 연대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회는 지부와 함께 투쟁계획을 세웠고 현장선전전, 서울 그룹본사 피켓팅, 부분파업, 천막농성 등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모축매 사측을 압박하고 지회 조합원에게 힘이 된 것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힘을 모아 공장 안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결과 연대의 투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지회와 지부,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동지들이 함께 대응하는 투쟁으로 현재는 임금체불 되는 일이 없으며, 적지만 임금인상도 되고 있습니다. 지회 설립 후 정말 좋은 것은, 지회 설립 전까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 했는데 지회 설립 이후 그래도 최소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측은 이를 받아 협의 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금속노조가 아니었다면 지회설립이 가능했을까?”, “현재의 지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회 조합원 23명 보다 몇 배가 많은 지부의 확대간부, 100배가 넘는 지부의 조합원들이 코스모축매 사측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노조파괴를 합법적으로 둔갑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노동개약 입법발의안, 경사노위에서 발표한 노동개약안을 보면 우리처럼 작은 사업장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어 우려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상급단체인 지부가 지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노동법 개약안은 코스모축매 같은 작은 지회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노동개약안입니다. 금속노조가 있었기에 작은 사업장이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하지만 현재의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를 파괴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파괴하여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노동개약이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노동개약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코스모축매지회는 인원은 적지만 노동개약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결의했습니다. 나 하나 결의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하겠지만, 나의 결의가 100명의 결의가 되고 3,500명의 결의가 되면 지부의 총파업이 되고, 금속노조 전체 지부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면 전체 금속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여 민주노총 총파업이 된다는 믿음으로 나부터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투쟁하는 민주노조만이 조합원의 희망이고

금속노조가 모든 노동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동개약을 반드시 저지합시다!

총파업 투쟁, 나부터 결의합시다!

